

은과 금: 수수한 색채의 암컷

다른 많은 조류와 마찬가지로 꿩도 수컷과 암컷의 몸 무늬가 많이 다릅니다. 수컷의 깃털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화려한 색상을 띠지만, 암컷의 몸 색깔은 주변 환경에 녹아들어 외적을 피하기 위해 눈에 띄지 않는 회색이나 갈색입니다.

닌세이는 한 쌍의 꿩 향로에서 수컷과 암컷의 차이를 재현했습니다. 색조는 차분한 암꿩 향로지만, 채색에는 꿩 향로와 마찬가지로 숙련된 기술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갈색 깃털의 복잡한 음영에는 은색 안료가 사용되어 있는데, 굽는 과정에서 은이 산화되면서 나타나는 갈색과 검정의 농담을 이용해 암컷의 갈색 색채를 표현했습니다.

머리부분에서도 예술 표현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암꿩은 수컷에게서 볼 수 있는 붉은 육수(일부 조류의 수컷에서 두부 경측에 늘어서 있는 육질의 융기)나 도가머리(새의 머리에 길고 더부룩하게 난 털)가 없지만, 이 작품의 암꿩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닌세이는 시각적으로 수꿩과의 연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암꿩에 색채를 더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모델로 사용한 실제 꿩이 수컷뿐이어서 암컷의 색채는 기억에 의존해 표현했을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향로의 꿩은 두 마리 모두 수컷이며, 암컷으로 보이는 꿩은 사실 밤의 어둠 속에서 색이 열게 보이는 수컷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 또한 흥미롭습니다.

닌세이는 도기를 굽는 과정에서 가마 안에서 점토가 변하는 모습을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복잡한 조형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꿩의 자세입니다. 곧게 뻗은 꼬리는 위로 45° 각도로 힘있게 뻗어 있고, 뒤를 돌아본 머리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마치 깃털을 다듬는 듯한 모습입니다(암꿩이 깃털을 다듬는 모습은 꿩 한 쌍을 묘사한 동아시아 그림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연기가 나오는 향로 구멍은 깃털 모양으로 뚫려 있어 장식 무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이 암꿩 향로는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5년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두 마리의 꿩, 다시 한 쌍으로

이 두 꿩 향로는 크기와 양식이 유사한 점으로 보아 수컷과 암컷 한 쌍으로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수컷 향로는 가가번 마에다 가문에 매입되었고, 암컷은 다른 곳으로 팔려 나가 한 쌍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1991년에 암컷의 소재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암컷 향로의 소유자이자 도쿄에 거주하고 있던 미즈노 후지코 씨가 이 암컷 향로를 미술관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닌세이의 가마에서 한 쌍의 꿩이 구워진 지 3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마침내 수컷과 암컷이 다시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두 마리가 나란히 상설 전시되고 있습니다.